

사랑의 추억 만들기

[나누는 몇 마디 (4)]

제임스 김 나눔

사고의 전환점?

우리에게는 사고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사고의 전환점이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공로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은혜의식).

(유진 피터슨의 "물통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사과

사과를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과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사과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구나 .

즉시 했어야 했는데 ...

타이밍을 놓쳤다.

사과해야 합니다.

어느 관계에 있어서나(특히 부부 관계)

우리는 상대방에게 잘 못했을 때

"I am sorry"(내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I am wrong"(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되

무엇을 그 상대방에게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그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The Five Languages of Apology"란 책을 읽으면서 느낀점).

사단은 ...

사단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을

무척이나 크게 보이게 만들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계속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귀에다가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꺼야'라고 속삭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 주님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보기엔 ...

사람들 보기에 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

사람들 앞에서의 종교 생활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

1. 사람들 앞에서의 종교 생활:
 - a.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 b. 사람들에게 높임(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 c. 사람들을 두려워 한다.
 - d.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하나님보다).
 - e. 사람들을 뜻을 이루려고 한다(하나님의 뜻보다).
 - f. 사람들과 비교한다.
 - g.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민감한다. 등등.

2.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
 - a.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b. 하나님을 경외한다.
 - c. 하나님께 순종한다.
 - d.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 e.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 f.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
 - g. 자기가 무익한 종인 줄 안다. 등등.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다는 것

한 때에는 개신교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분이
지금은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사랑 고백 및 용서(구)하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또는 용서를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사랑 마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을입니다.

서로 보고 싶은 지체들이 함께 만나서 즐겁게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진솔하게 진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거짓과 가식이 없고 서로를 마음 속으로 비판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 각자를 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듯이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농담 속에서도 오해보다 웃음이 있으며

사진 찍기 속에서도 마음의미를 느낄 수 있는 모임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므로 주님 중심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아가는 사랑 마을입니다.

사랑과 이해 및 오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해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은

이해보다 오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절제가 ...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아니오"해야 할 때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오"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

사랑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기억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은 그 귀한 기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고민과 고통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란 말씀이 생각납니다(아가 8:6).

금년 2016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제 마음에 깊이 남겨주신 사랑은 참으로 죽음 같이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하는 분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제 마음 판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이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케 하시사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보내드리는 사랑을 이렇게 금년 한해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마음껏 고히 간직합니다.

사랑은 ...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동시에 사랑은 용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

사랑은

과분한 마음의 진실된 즐거운 섬김조차도

그 상대방을 배려하여 겸손히 받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섬김이 매우 이기적이게 보여두 말입니다. 하하

사랑은 ...

사랑은

곁에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느끼니 ...

사랑하는 분의

위로의 한 마디를 통하여

사랑을 느끼니 힘이 됩니다.

마음이 몽클합니다.

그저 그 분에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받는다는 것,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또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지.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분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사랑이네요.

사랑의 마음

사랑을 받는다는 것, 마음이 흐뭇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 마음에 힘이 납니다.

사랑의 빛을 쬐습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분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그 분을 위해 기도하므로
위로가 되셨다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빛을 쬐습니다.

사랑의 작은 몸부림

사랑하기에,
좀 더 사랑하고자 작은 몸부림을 친다.

사랑의 추억 만들기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아버지로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준 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딸과 차 안에서 exiting 한 대화를 나눈 후)

사랑의 추억이 많을 수록 ...

사랑의 추억이 많을 수록
그리움의 눈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

금년 새해에도 유난히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많이 봅니다.
그 눈물들이 저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울며,
그 우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가기 위해선 ...

사랑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가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의 그 사람을 향하여 쌓아놓은 "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서트리고 녹여 없애야 한다.
그래야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선입관 없이 마음 문을 열고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조금씩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어쩌면 그 자녀가 앞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니까
만일 그 자녀가 앞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그 자녀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또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감

나 자신의 큰 고통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감의
훨씬 더 큼과 넓음과 깊음과 높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를텐데 ...

신속히 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
참으로 짧은 인생일진데 ... ㅠㅠ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기쁨과 분유하는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기원합니다.

사명과 비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므로(요 6:1-15)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마 16:18)입니다.

저의 비전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사명따라 살다가 죽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따라 살다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인생을 마치기 위해서는 은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비록 은퇴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될텐데 ...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business 를 하는게 아니라 ministry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workers 이 아니라 brothers (in Christ)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business 를 하는 느낌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형제가 아닌 worker 이란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역이 ...

사역이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사람들과 교회라는 조직에서 power 와
인정을 받으려는 쪽으로
변질이 될 위험을 차단해야 ...

사탄의 역사?

사탄은

'하지 말라'와 '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머리에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Iain M. Duguid의 "EZEKIEL" 주석을 읽으면서)

사탄의 유혹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고난이 없는 십자가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요,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Iain M. Duguid의 "Daniel" 책을 읽으면서)

신앙이 너무 훌륭하면

믿음이 너무 훌륭하면 (?)

믿음이 약한 형제의 슬픔을 체휼하지 못할수도?

살 맛을 나게 하는 세상의 소금

우리는 살 맛이 안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맛을 나게 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엿보게 되니
놀랍고 기쁘고 도전이 됩니다.

삶 속에 어려움 ...

삶 속에 어려움이 왜 있을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어 보일찌라도
한 가지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인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얻는 것은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은 것"이다.

삶을 극대화하자.

역기를 드는 것도 그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좀 더 힘들어도 내가 들수 있는 무게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maximize 하듯이 주님 안에서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미 받은 은사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maximize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지금의 안전하고 편안한 것에서부터 나와
힘들고 어렵고 실수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모험과 시도를 해야겠다.

삶의 기쁨은 ...

삶의 기쁨은
하루 하루 일상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찌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

삶에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위기는 ...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시편 63:3).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위에 사람들의 작은 사랑의 표현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삶이 분주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기에 ...

삶이 분주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글 등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그 말(글)을 대충 해석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해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미안해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그/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

내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한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힘들게 들릴 수가 있을텐데 ...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 기준으로 속단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며,
내 입술로 비판 및 비방하지 말자.

상대방의 의중

상대방의 의중을 어찌 알 수 있으랴 ...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의중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겠지
만일 그 상대방이 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의중은 나의 유익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것이다.

상상의 날개

상대방에 대해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함부러 추측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상처가 아닌 사랑

상처있는 사람에게에는
사랑이 필요하지
또 다른 상처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 ㅠ

상처들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야 할텐데...

상처를 주는 목사님과 교인?

교인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목사님,
목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교인.

상처입은 치유자?

주님께서는
상처입은 치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큰 상처보다
상대방의 상처를 더 크게 보게 하시므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에 하시고 섬기게 하시사
상대방에게 위로해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입은 치유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세상이 줄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상품화 된 교회?

교회도 상품화 되었는지
교회 브랜드가 좋다(?)고 생각하면
매력(?)을 느껴 그 교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보다 말씀에 ...

상황에 영향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하시고,
상황에 끌려가기 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참고: 수 14:6-15).

상황의 바뀜보다

내가 접한 힘든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보다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게 더 낫습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힘든 상황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강박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든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우리의 본능은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닌 사명 따라 ...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고 싶습니다.

새 것보다 익숙한 것이

나는 새 기계가 좋지만
상대방에게는 익숙한 기계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만남(들)을 주실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저(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고 (또 없어야겠지만)
어쩌면 그 주님의 뜻이 이것(또는 저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아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 생각 밖에서도
충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아가실 것이기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하하

새해 2019 년!

새해 2019 년,
내가 죽을 날이 1 년 더 가까워졌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1 년 더 가까워졌기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그 이유는 이러나 저러나
사랑의 주 예수님을 만날 날이
1 년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1 월 1 일 부터 ...

새해 2016 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할 줄은 예상했지만
첫날인 1 일 부터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참으로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이 참된 소망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생각보다 기도

내가 먼저 생각하기 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생각에도 질서가 있어야

지난 날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때
나는 내 자신으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무질서하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었던 면이 생각났다.
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면서
쓸데없이 괜한 생각들을 많이한 것이다.
결국 나는 내 생각들을 무질서해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생각들로 하여금 내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질서있게 생각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만일 내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들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말씀들이 내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므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그 결과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는 내가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충만, 성령충만함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으로 하여금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 무질서하게 생각의 날개를 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한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 생각하지 않도록 힘써야 겠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잠언 29 장 18 절, 현대인의 성경).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도 ...

그 한 가지 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일에만 생각이 몰두하게 될 때
어쩌면 다른 한 가지 일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므로
내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

생각의 영역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

생각의 영역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
세상적인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그리할 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또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할 때 나는 말씀 중심된 생각에서 말씀 중심된 행동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의 영역에서의 싸움

힘들고 어려울 때 상상의 날개를 펴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생각의 영역에서
무익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생각케 만든 후배들의 말

조금 전 대학 후배 두 명하고 식사하며 커피 한잔 하는데 ...

나는 한 후배 입에서 '계산적인 모험'(calculated risk)란 말을 들었다.

내 기억으로는 내 평생에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다.

"모험"이란 말은 수 없이 들었고 말을 했겠지만 '계산적인 모험'이란 말은 ...

흠 ...

모험이 계산적일 수 있을까?

계산적이면 모험이라 말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니 이 두 후배를 안지도 벌써 한 26년 된 것 같다.

나는 또 다른 후배의 입에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도 그 후배는 반 농담삼아 내가 대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한 것 같다.

동시에 그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내가 좀 변했으면 하는 맘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후배가 나에게 '변질됐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ㅎㅎ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자.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 주면 안될까 ... ㅠ

순수한 마음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인가 ... 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말을 한 사람은 왜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 ... ㅠ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 주면 안될까 ... ㅠ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

교회 안에서도 ...?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사랑하면 그 마음의 말을 믿어줄텐데 ...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서로의 다른점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성격상 서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마음이 맞으면

(한 마음을 품으면)

서로의 다른점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을텐데 ...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선물(gift)을 즐거워하기 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The Giver of that gift)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선물해 달라고요? ㅎㅎ

어제 저는 두 지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ㅎㅎ)
카톡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이모티콘을 선물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그만치 하루에 4 개의 이모티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ㅎㅎ
그랬더니 그 지체 중 한명의 왈:
"티콘 선물해달라는 목사님은 생전 처음 뵈었수다" ㅎㅎㅎㅎ

PS. 참고로 저는 독특한 이모티콘을 좋아합니다 ㅋㅋ

선제 사랑, 선제 용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사랑을 받고(선제 사랑)
또한 미리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선제 용서).

(유진 피터슨의 "물통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선택의 결과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죄를 짓는 선택을 하므로

그 결과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줄 때에는 말입니다.

(Josh Mulvihill의 "PREPARING CHILDREN FOR MARRIAGE"을 읽으면서)

선택의 결정의 기준은?

선택의 결정의 기준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며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등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설교 듣기 준비

- A.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1. 토요일 일찍자야 합니다. 폭 잠을 자야 주일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2. 주일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어서 설교 시간에 배가 꼬르르 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3. 주일 예배 시간 보다 한 30 분 일찍 예배당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집에서 여유있게 있다가 예배 시간 정각에 맞춰서 부랴부랴 오던지 아예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성이 없는 자세입니다.
 4.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마음 준비가 필수입니다.
 - a. 마음에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나 없나 하는 꼬투리 잡는 듣기식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귀는 병든 귀입니다. 설교는 "트집 잡기"가 아니라 "진리 찾기"입니다(Jay Adams).
 - b. 매일 조용한 시간에(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둔한 귀"(히 5:11)를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Adams).
 - c.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Adams).

설교자의 고민

오늘 아침 설교자로서 유익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얻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신앙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데 있다면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

섬김에 있어서
육신적인 피곤함과 지침 보다
마음적인 기쁨/즐거움과 보람이
더 클수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추억을 많이 만들자

섬김을 받았던 기억보다
섬겼던 추억이 더 낫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성껏 힘을 다해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그리 감사해 하지도 않을 때에
충분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묵상하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배우?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가르침과 실행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 수록
성경 배우(Bible actor)이 될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사랑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리스도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죄의 기준을 낮추면 ...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다들 그리한다고 등으로
합리화 시켜서 성경적인 죄의 기준을 낮추고 또 낮추면
우리는 영적 문둥병자 같이 양심이 가책과 죄책을 느끼지 못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못할?) 것입니다.

성급한 속단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나 성급하게 속단하여
함부러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

성도님들은 ...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도의 교제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어 지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역사하심 등을 경험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사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 관점으로 재조명케 하십니다.
재조명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시사 인정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택하사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의 일꾼의 죽음을
결코 허비하지 않으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시사
뜻하신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 성전 성화

성령님께서서는 성령의 전인 우리를 성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Iain M. Duguid,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EZEKIEL"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실한 목사님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사는 문화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서,
이 세상이 존경하고 보상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단순한 신앙과 순종과 예배의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 "물총새에 불이 붙듯")

성품에서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성품의 카리스마

인격이 부족한데 카리스마가 강한 지도자보다
카리스마는 부족하지만 인격이 훌륭한 지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 더 나은 지도자는 말씀 인격화 되어가는 인격(성품)의 카리스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부족?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헌신도 (commitment)와 간절함(earnestness or desperateness)과 긴박감(sense of urgency)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원인이 이기주의와 안락주의와 게으름이라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 ...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최악된 습관이 참 오래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명철을 의지하여

세상 방법대로 일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쓴 결과를 맛 볼수 밖에 없다(예: 야곱).

(Iain M. Duguid 의 'The Gospel in the Lives of Isaac & Jacob'를 읽으면서)

세상과의 화합, 교회 안에서는 불화

우리가 이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럽고 추한 모든 모양의 악을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더럽고 추한 죄악에 많이 오염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분리하고(나뉘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 있지만
지금 교회는 세상과 화합(harmony)하고 교회 안에서는 불화(disharmony)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사단은 모든 것을 거꾸로 바꿔 놓고 있는 것(exchanged)입니다(롬 1:23).
사단은 교회를 나뉘게(분리되게, 불화하게) 만들고 세상과는 화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

제 자신으로 인하여 낙망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절망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할 때에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나의 소망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오늘도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로 인한 썩은 열매를 볼 때에 낙심되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선한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

손해를 보는 것이 아깝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자백

요즘 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보다
솔직하게 "나의 욕심"이라고 자백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우리 자신의 양심에게는 ...

수동적 사랑과 능동적 사랑을 교체하면서 ...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수동적 사랑과 능동적 사랑을 교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수준을 낮추고 또 낮춰야?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 가족과 일과 식사와 장보기와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서 겸손히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할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성육신 사역).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순결 추구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순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처남

처남의 나이가 한국 나이론 오십이지만 자폐증 같은 것이 있어서 정신 연령이 어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아버지께 대해서 묻길래
제가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가셨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것이라고 말해주니까
처남은 기뻐하면서 'My dad went to Heaven!'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일 오후 장인 어른신이 죽으신 것을 모르고 집으로 찾아오신 이 동네에서 장인 어른신과
제일 오래 알고(40년이 좀 지난듯) 친하게 지내시는 Mr. Kim 이란 분에게 처남이 그분이 차에서
내리시기도 전에 'My dad went to Heaven!'이라고 기쁘게(신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하

순수함과 지혜로움

저는 사람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일 지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선을 분명히 거가면서 지혜롭게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잘 못하는 많은 것 중 하나는 사람 지향적이든 일 지향적이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 둘 다 균형있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를 생각할 때

감사, 감동과 더불어 힘이 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목사님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건강이 양좋아지셔서 약 3년 전부터 음식을 조절하여 싱겁게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마치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나의 건강에 좋은 것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먹으면 내 영적인 건강에도 좋을텐데

나는 마치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이것 저것 순간적으로 맛 돋구는 양념들에 현혹이 되어

내 영적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전함

욕심이 순전함을 잃게 하는구나 ...

순종 혹은 불순종?

왠지 초신자 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 같은 모태 신앙인들은 죄인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같다.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고 지금도 범하고 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C. D. " JIMMY " AGAN III 의 "The IMITATION of CHRIST in the GOSPEL of LUKE"을 읽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지난 주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시 121 편).
그리고 이렇게 한 3 일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

순종함에 있어서
희생이 따를 때에 흘리는 그 아픈 마음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임을 받는 것보다
더 낮습니다.

스쳐지나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

스쳐지나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뜻하신 만남이라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스타 목사가 아닌 스톱 목사가 되어

스타(별) 목사가 되기보다
스톱(그만) 목사가 되어 ...
교만/거만/오만 스톱,
물욕,소유욕/명예욕 스톱
욕심/탐심 스톱,
거짓/속임수 스톱,
.. ???

슬퍼하지 말고 울자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지 말고
남아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울자.

슬픈 일이 ...

슬픈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

슬픔

슬퍼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

슬픔의 역설?

슬픔의 역설?

슬픔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기쁨만을 원할 수 있을까?

시간 혹은 사랑?

시간이 약이 아니라

사랑이 약입니다.

시련을 통과하여 풍부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물에 걸린 사람처럼,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맨 사람처럼,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함을 받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는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십니다.

그 때 나는 ...

고난 때에 서원한 것을 주님께 갚을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66 편)

시작보다 끝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 어떻게 끝을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험과 유혹의 필요성?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과 유혹이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준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자신이 시험에 드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한다면

제 개인적 생각은 봉사하던 것을 내려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려 놓지 않고(못하고) 계속해서 봉사하다가 자신만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퇴보와 더불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시험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봉사하던 것을 내려 놓고 자기가 어디서 부터 떨어졌는지,

왜 시험이 이겨 나아가기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과 일대일 관계와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까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야 합니다.

신경 쓰이는 일

신경 쓰이는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하하.

A 라는 일이 더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B 라는 일이 갑자기 터져서 급하게
더 신경을 쓰게 되니 그 덕분에 A 라는 일이 들 신경이 쓰여서 감사하네요. ㅎㅎ

신뢰 ... 중요합니다.

신뢰 ..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 발생한 위기는 신뢰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뢰를 까먹어 생긴 위기는 돈으로 회복할 수 없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뢰를 쌓아야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 ...

돈을 쌓는 것보다 신뢰를 쌓는게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할텐데 ...

신뢰와 실력

서로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이해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됩니다.

신실함의 작은 발걸음들을 매일 매일 꾸준히 내딛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주님과 의 관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참으로 중요한 점은
신실함의 작은 발걸음들(small steps of faithfulness)을
매일 매일 꾸준히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의 작은 발걸음들을
매일 매일 신실하게 꾸준히 내딛을 때에
그 부부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것입니다.

신앙 vs. 불신앙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Faith = obedience)

불신앙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Unbelief = disobedience).

(L. Anne Jervis, "At the Heart of the Gospel" 읽으면서)

신앙 뱃띠리의 충전기는 ...

전화기 뱃띠리는 충전기라도 있지

인생 뱃띠리는 수명 다하면 이 세상에서는 끝!

신앙 뱃띠리의 충전기는 원지 알면서도 안하고 있으니... ㅠㅠ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깨끗해 져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 지면 질 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인식하면 할 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 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수고하며 충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굴곡이 많을지라도 ...

신앙이 굴곡이 많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사람이 보기엔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 없이 일어나는
매우 불안한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신앙의 삶의 리듬?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사는 것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리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과
그 묵상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알게되고 믿게된 것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신앙의 여정에 배우는 것은 ...

신앙의 여정에서 배우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신앙이 너무 훌륭하면?

믿음이 너무 훌륭하면 (?)
믿음이 약한 형제의 슬픔을 체휼하지 못할수도?

신앙이 성장하면 할 수록 ...

신앙이 성장하면 할 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 할 수록
죄를 더 많이 회개하고 버립니다.

신앙적 과시욕을 경계하자!

신앙적 과시욕을 경계하자.

잘못하면 그것이 외식이 되고 외식하다 보면 그것이 허식이 되고

허식하다 보면 그것이 가식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고

내 자신의 의(self-righteous)를 과시하는 위선자가 될 수 있기에

신앙적 과시욕을 경계하자.

실수가 있을 수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실패할 여지를 허락하고 ...”

자녀 양육 참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세 자녀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He (she) has to figure it out.'

아내는 각 자녀 알아서 각자가 처한 상황을 대처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내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게 있으면 그 실수나 실패는 가치가 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힘들지만 저희 부부가 추구하고 싶은 사랑은 Tough 한 사랑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다보니
자녀들도 어머니를 본받아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위가 남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건데 ...

죄의 결과가 심각한데,
특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는 심각할텐데 ... ㅠㅠ

심각한데 ...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정도록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약국에 가서 반창고만 사다가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조취하기 보다
임시 방편으로 반창고만 붙이고 있는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심화되어가는 부부 갈등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까지 싸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전혀 몰랐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길 기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숨겨 놓은 죄가 들춰질까봐 두려워하기 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들춰진 나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길 기원합니다.

쓰레기를 잘 버려야 할텐데 ...

매주 주일 오후가 되면 저는 집 안에 쓰레기 통들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쓰레기 봉지에다가 넣어 집 밖에 있는 쓰레기 통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월요일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월요일 아침 아내와 달린 학교, 직장가는 모습을 보면서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물들을 보고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 통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담았던 병들 등을 씻으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매주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은 쉬운데 제 마음과 생각에 무수한 쓰레기들은
매주, 아니 매일, 매 순간마다 버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보이는 쓰레기보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사람이 되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안될텐데....